

2021 NEW

# 나 없이 EBS 풀지마라



◆  
수능특강  
고전문학편

▶ 521개의 논문 인용  
▶ 647개의 평가원 선지

전형태 편저

# 나BS 특징

## 이 책의 활용법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 나BS 문학편은 논문을 담았습니다.

출제자는 전공자의 논문을 통해 보기와 선지를 구성합니다.  
나BS [고전문학편]과 [현대문학편]은 수 많은 논문을 인용하여  
EBS를 분석합니다. **출제자의 시선으로.**

LBS — 나 없이 EBS 풀지마라

고전 소설

9 유득공, 유우춘전

Step  
04

논문으로 만나는 출제자의 시선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 유우춘의 생애

유우춘은 18세기 후반에 실존했던 인물로, 해금의 영인이었다. 그는 영조 대 유신관을 진압하는 데 공이 있었던 유운경과 그 집의 여중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친의 신분 때문에 노비가 되었던 유우춘은 후에 이복형의 도움으로 영인이 되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조선 후기 5군영 가운데 하나인 용호영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해금을 연주했다. 유우춘은 훌륭한 음악인이 되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해금 연습에 몰두하여 장만에 소문난 해금 악사로 소문이 났다. 그는 격조 있는 자리에는 모두 불러 다녔고, 그의 연주를 듣는 일은 곧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하는 일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경지가 깊어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의 수준을 알아주지 못하는 단치 우연한 악사의 음악을 들었던 사실 자체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지들이 온갖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더 즐거워했고, 깊은 예술적 경지는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문 음악인들이 기껏 불러가서 연주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기 말쑥했다. 결국 유우춘은 노기가 사망하자 연주를 그만둔다. 그 후 유우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

#### 조선 후기 사회적 배경과 유우춘의 예술관

유득공이 살던 18세기는 중인종의 성장이 두드러지던 시기였다.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인종은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 공간에서 주요한 소비층으로 부각하였다. 당시 중인들이 생계를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를 하면서 도시 공간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었다. 반면 기존의 문화예술을 함유하던 주재연인 궁중에서는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연행되던 연화나 연말을 기념하여 연행하던 나례희 등을 폐지했다. 조선 후기 문화예술에 대한 궁중의 수요가 줄고, 민간의 수요가 늘면서 문화예술을 함유하는 주체가 자연스럽게 궁중에서 민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 후기 문화적 환경이 변모하면서 예술을 재능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의 연행을 취미가 아닌 생업으로 삼는 전문 예술인이었다. 예술 연행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연행되는 예술은 점차 상업성을 띠며, 소비자의 대중적 취향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과거 궁중과 사대부들이 주도하던 예술이 관념성을 띠었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변화였다. 결국 조선 후기 예술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예술로 전락했고, 고차원적인 예술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는 등한시되었다. 「유우춘전」의 작가는 유우춘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 속의 예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유우춘은 직업 예술인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술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를 볼 때 그의 예술관은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유득공의 생애와 사상

유득공은 18세기의 실학자로, 「경도잡지」, 「영재집」, 「발해고」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사설 출신으로, 조선 후기의 부당한 사회질서가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몸소 겪었다. 다섯 살 때 부친이 사망한 후 유득공은 계속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의 모친 흥 씨는 아들의 공부에 대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썼다. 흥 씨는 고관들이 많이 사는 서울 정행방(지금의 종로구 경운동)으로 이주한 후, 삼바느질로 가족의 생계를 이룩하는 학업을 이어갔다. 유득공의 숙부는 복학파의 실학자로, 유득공의 학문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숙부 덕분에 유득공은 복학파 인사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된다. 그리고 이때 「발해고」 등 대표적인 저서를 집필하였다. 비록 그는 사설 출신이었지만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정조의 배려로 20여 년 간 관직 생활을 하며 말년에는 정3품까지 올랐다.

고전 소설

9 유득공, 유우춘전

수능특강 127page

2021 수능 국어 대비  
실전 국어 진행태

Step  
01

OX 문제를 통한 지문 이해 훈련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서기같은 음악에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거문고와 피리를 연주하게 해서 흥을 돋우었다. 나는 기공을 따라 놀며 즐기다가 한번은 해금을 하나 얻어 가지고 가서 손을 놀려 벌레 소리와 새소리를 내 보았다. 기공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잠이나 한 움큼 피 주어야겠군. 이런 거지 장량이 소리지 뭐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과 ‘속악’의 두 가지가 있어. 아악이라는 건 옛날의 음악이지, 사직과 문묘에는 아악을 쓰네. 종묘에는 속악을 섞어 쓰는데, 이게 바로 장악원의 속악이지. 군대에서 쓰는 속악은 ‘세악’이라고 하네. 사기를 고취하기도 하고 개신가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추었기에 높이며 잔치에서도 이 음악을 쓰지. 그리하여 철의 거문고로 안의 깃대며 등의 장구며 북의 피리를 일컫게 되었고, 유우춘과 호금가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네.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장량이 소리를 배웠는가?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기대어 해금을 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갖난이끼며 가족이며 달이나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활을 쏘 뛰어다 떠다니네.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군.”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서 해금을 자루에 넣고는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 내팽개쳐 두고 꺼내보지 않았다.

어느 날 일가 사방인 금대 거사가 찾아왔다. 거사는 작고한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다. 유운경은 젊어서 할적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으며, 영조 무신년(1728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웠다. 유운경은 이 장군 때 아종을 좋아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두 아우는 지금 모두 어디 있습니까?”

“어허 모두 여기 있지. 내 친구 중에 병방 고을 수령이 된 자가 있거든. 내가 말을 써대고 2천 리 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돈 5백 냥을 얻어 왔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때 가서 두 아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서 망건을 팔고 있지. 작은 아우는 용호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잘 쳐서 요사이 ‘유우춘의 해금’이라고들 하는 유우춘이 바로 그걸세.”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에 내며 깜짝 놀랐다. 이렇듯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의 병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게 우선 서글웠지만, 한 가지 계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다.

#### OX 문제

- 01 윗글은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2014학년도 9월 B] (○ / X)
- 02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A] (○ / X)
- 03 서기공은 ‘나의 해금 소리를 듣고 비렁뱅이의 연주 길다며 혹평하였다. (○ / X)
- 04 유우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해금 실력을 자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 X)
- 05 윗글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2019학년도 6월] (○ / X)
- 06 유우춘은 충실과 대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연주했을 때 청중의 반응을 보고 실망하였다. (○ / X)
- 07 유우춘은 자신과 거지의 음악을 비교하며 높은 경지에 이른 거지의 실력을 칭찬하고 있다. (○ / X)
- 08 금대 거사는 유우춘의 명성을 듣고 그의 해금 연주를 듣기 위해 몸값을 치르고 유우춘을 데려왔다. (○ / X)
- 09 윗글은 인물의 행적을 제시한 후 그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글을 마무리하는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 / X)
- 10 유우춘은 자신의 음악적 재주가 날로 향상해가는 데 반해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것의 원인을 외부의 상황에서 찾고 있다. (○ / X)

## 나BS 문학편에는 평가원 기출이 있습니다.

나BS에는 평가원 선지가 수록되었습니다.  
평가원의 개념으로 EBS를 분석할 수 있도록,  
평가원 기출 선지로 O.X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Step  
02 지문 분석

LI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이 몸 삼가실 계 남을 조차 삼기시니	⇒ 이 몸 태어날 때 일을 따라 태어나니
혼신 연분(緣分)이여 하늬 모를 일어리간	⇒ 한평생 인분을 하늬이 모르고는노나.
나 후나 젊어 있고 님 후나 날 괴시니	⇒ 나 후나 젊어 있고 님 후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소랑 견줄 데 노여 없다	⇒ 이 마음이 이 사람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신(平身)에 원(願)후유디 후디 배자 후앗다니	⇒ 평생토록 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늬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노고	⇒ 늬이사이 무슨 일로 외로이 그러는가.
→ 일과 사정을 잘 모르니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연(廣寒殿)의 울났더니	⇒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전에 울었는데
□ : 뵈기 있는 곳 궁궐	
그 마디 엇디후야 하계(下界)에 노려오니	⇒ 그 사이 어찌하여 지상에 내려오니
□ : 작사가 있는 곳, 인간계 천궁 천령	
울 저기 비스 머리 햇물연디 삼 년(三年)일씩	⇒ 울 때에 비스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씩
→ 이별하여 떨어진 지(三)년(三)년(三)간	
연지분(緣分) 잇나마는 늬 후후야 고이 후고	⇒ 연지분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굳게 단상할까.
→ 이별한 후(後)를 맞이하는 의미	
마음의 미친 실음 법법(佛佛)이 뵈혀 이서	⇒ 마음에 맺힌 사물이 침침이 뵈여 있어
→ 광명을 세간적으로 구별함	
갓나니 한숨이오 다나니 눈물이라	⇒ 갓는 것이 한숨이오, 흐르는 것은 눈물이라.
→ 대(大)법(法) 안에 대한 그리움을 가늠함	
안성(安成)은 유혼(有魂)후디 시로도 그지없다	⇒ 인생은 유한한데 시로는 그지없다.
→ 대(大)법(法) 인생과 시를 비교하여 최자의 시를 가늠함	
무심(無心)은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후노고야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르는구나.
→ 비(非)관(觀) 사물 등 물(物)을 비유하여 시간의 윤희(流轉)를 인하여(因)함	
염담(淡)이 세물(世物)이라 가는 듯 고혀 오니	⇒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 일과 사정은 차(差)이(異)인(因) 후(後)	
뜻거니 보거나 늦길 일도 하도 할사	⇒ 듣고 보고 하는 중에 마음에 북받치는 일도 있고 없다
→ 늦길(遲)이란 사(事)를 들어 만든 말을 함	

《사》 일로와 인연과 이별 후에 노는 그어를

『시어 시구 풀이』  
이 몸 삼가실 계 ~ 하늬 모를 일어리간  
→ 화자가 님과 친상(親相)임을 강조한 부분. 화자의 운명론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음.  
나 후나 젊어 있고 ~ 견줄 데 노여 없다  
→ 님과 이별하기 전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 부분. '나'는 정지후, '일'은 일금을 가리킴.  
광한연 → 달 속에 있다는 가상의 공간.  
하계 → 인간 세상.  
엇그제 님을 뵈서 ~ 햇물연디 삼 년일씩  
→ 궁궐에서 님을 모시다가 시골에서 온 거한 지 3년이 지났음을 나타냄. 이 부분에서 궁전의 '대(大)'가 이루어지는데, '광한연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며 '하계'는 작자가 은거하는 창방임.  
무심(無心) ~ 고터 오니 → 임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세월만 덧없이 흘러감을 안타까워하는 부분. '무심한은' 직자를 불러주지 않는 일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뜻거니 보거나 늦길 일도 하도 할사 →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곁한 일이 많음을 제시한 부분. 본사에 이별의 내용을 늦길 앞과 일치함.

# 나BS 문학편은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모든 지문의 구조 분석, 작품 해제와 주요 시어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철저한 EBS분석은 수험생이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를 바라는  
전형태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Step  
03 작품 해제

LI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주제** 연금지정(戀情之痛)

**특징**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②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회를 드러냄.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 ④ 일상적 소재를 미화함으로써 인물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부각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임금을 시모하는 신하의 마음을 맑고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로 표현한 충신연주사의 대표작이다. 작자는 선조 18년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 전년 창평에 은거할 때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작자는 임금 잔디만이나 물아진 듯 머거지는 은거자로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노래하였다. 서사에서 화자는 임을 찬양연분으로 여기면서 이별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화자와 임은 대립되는 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제시되는데, 화자는 과거에는 자신 또한 임금과 함께했음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다. 본사에서는 춘, 하, 추,冬の 계절적 변화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임을 향한 일념(一信念)이다. 화자는 때와 때에 따라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님에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내어, 임의 선정을 기원하거나 임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한다. 결사는 사사의 첫 구절과 호응하며 마무리함으로써 임을 사랑하는 것이 화자의 속행과도 같은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작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화자를 설정하여 충신으로서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전개 방식과 더불어 미화법, 비유법, 설화법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우리들의 이해도를 잘 살린 언어 구사가 돋보인다.

# Contents

이 책의 순서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 PART 01. 고전 시가

			나BS	수특
1	정석가	작자 미상	08	12
2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14	38
3	오백 년 도읍지를	길재	17	38
4	선인교 나린 물이	정도전	20	38
5	구지가	작자 미상	23	42
6	꽃샘바람	이규보	27	42
7	동동	작자 미상	31	44
8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38	47
9	시내 흐르는 골에	신희문	41	47
10	뒤틀버들 가려 것거	홍량	45	47
11	만흥	윤선도	48	49
12	님이 오마 하거늘	작자 미상	53	52
13	나모도 바히 돌도	작자 미상	56	52
14	사미인곡	정철	59	54
15	만연사	안도환	67	57
16	갑민가	작자 미상	77	61
17	집장가	작자 미상	89	65
18	형장가	작자 미상	94	65
19	정선 아리랑	작자 미상	98	68
20	제가야산독서당	최치원	102	71
21	야청도의성	양태사	105	71
22	보리타작	정약용	109	220
23	저곡전가팔곡	이휘일	113	220
24	논매기 노래	작자 미상	119	221
25	어이 못 오던다	작자 미상	124	225
26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	127	228
27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131	232
28	가마귀 싸호는 골에	작자 미상	135	235
29	가마귀 검다하고	작자 미상	138	235
30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박효관	141	235
31	가마귀 가마귀를 쫓차	작자 미상	145	236
32	백사장 홍료변에	작자 미상	148	236
33	해가	작자 미상	151	276
34	현화가	작자 미상	154	276
35	훈계자손가	김상용	157	289
36	노처녀가	작자 미상	161	305

**PART 02.**  
고전 소설

		나BS	수특	
1	이춘풍전	작자 미상	170	19
2	심청가	작자 미상	177	34
3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작자 미상	184	108
4	김현감호	작자 미상	191	111
5	공방전	임춘	198	114
6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204	117
7	창선감의록	작자 미상	212	120
8	옥루몽	남영로	221	123
9	유우춘전	유득공	230	127
10	속향전	작자 미상	238	131
11	전우치전	작자 미상	247	136
12	흥보가	작자 미상	255	140
13	성조풀이	작자 미상	263	145
14	콩쥐팥쥐전	작자 미상	272	224
15	주생전	권필	279	238
16	최척전	조위한	285	239
17	바리데기	작자 미상	292	259
18	임진록	작자 미상	299	263
19	수로부인	일연	306	276
20	육미당기	서유영	312	279
21	예덕선생전	박지원	320	292
22	할계전	이익	328	294
23	상녀	작자 미상	331	307
24	금방울전	작자 미상	335	309

**PART 03.**  
고전 극/수필

1	꼭두각시놀음 - 평안감사마당	작자 미상	346	190
2	봉산탈춤	작자 미상	353	194
3	유관악산기	채제공	360	198
4	일야구도하기	박지원	367	201

정답과 해설

2021 NEW

나 없이  
EBS  
풀지마라



수능특강  
고전문학편

PART

01

# 고전 시가

✓ 521개의 논문 인용  
✓ 647개의 평가원 선지

# 16 작자 미상, 갑민가

2021 수능 국어 대비  
실전 국어 전형테

Step

01

OX 문제를 통한 지문 이해 훈련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EBS 수록 부분〉

어저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흰 잠방이\* 노닥노닥  
굽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앞쳐지리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차라리 네 살던 곳의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狹皮)\* 잡아  
공채(公債) 신역(身役)\*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나  
우리 조상 남중(南中) 양반(兩班)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 한 후에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有司) 장의(掌儀)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군사 강정(降定)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되거고야  
누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나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 잎이 날 속인다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狹皮山行) 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앞갈나무로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祝手)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하여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 일기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 아니 불네

〈EBS 중략 부분〉

빈 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三池淵)에서 자야 할 판이라  
입동(立冬)이 지난 삼 일 후에 밤중에 눈이 꽤 오니  
눈이 오 자 깊이를 이미 넘어 사오 보(四五步)를 못 옮기겠구나  
식량이 바닥나고 옷은 얇으니 앞의 근심 다 떨치고  
목숨을 살리려 욕심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길을 헤쳐  
인가 근처를 찾아오니 검천거이(鈐川巨里) 첫눈에 보이는구나  
첫닭 소리가 그윽하고 인가는 적적(寂寂)하니 한참 자고 있는구나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魂飛魄散) 반(半) 주검이  
말도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래쪽에  
송장 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수습(收拾)한 후의  
두 발끝을 굽어보니 열가락이 간 데 없네  
간신히 조리(調理)하고 목숨을 구하여 소에 실려 돌아오니  
팔십 된 우리 노모(老母) 마중 나와 하시던 말씀,  
살아 왔구나 내 자식이 사망 없이 돌아온들 모든 신역을 걱정하겠느냐  
논밭과 살림살이를 모두 팔아 사십육 냥의 돈을 가지고  
파기소(痍記所) 찾아가니 병역 담당자가 호령(號令)하되  
우리 사또 분부하시기를 관내 각초군(各哨軍)의 여러 신역을  
돈피 말고는 받지 말라 하시네 관령(官令)이 이렇게 지엄(至嚴)하니  
하릴없이 물러나는구나 돈 가지고 물러나와  
역올한 사정을 글로 지어 하소연하니 물위변소(勿爲煩訴) 제사(題辭)하고  
군노 장교(軍奴將校)를 보내어서 불 같이 재촉하니  
노부모의 원행치장(遠行治裝)으로 팔승(八升) 네 필(匹)을 두었더니  
팔 냥(兩) 돈을 빌어서 받고 팔아다가 채워내니 오십 여냥 되겠고야  
삼수와 각진을 두루 돌아 이십육 장(張) 돈피를 사니  
십여 일 거의 가깝게 지났구나 성화 같은 관가분부(官家分付)로  
대신 벌받을 사람을 가두었네 불쌍한 병(病)든 아내는  
감옥 안에 갇혀서 결항치사(結項致死) 하였던 말인가  
내 집 문 앞으로 돌아오니 어미 부르며 우는 소리가  
구천(九天)에 사무치고 의지할 데 없는 노부모는  
불성인사(不省人事)되어 누워 있으니 기절(氣絕)한 탓이로다

여러 신역(身役) 바친 후에 시체(屍體) 찾아 장사 지내고  
 사묘(祠廟) 되서 땅에 묻고 애가 끊도록 통곡(痛哭)하니  
 무지미물(無知微物) 참새때도 또한 서럽게 운다  
 변방 가운데 우리 같은 인생(人生) 나라 백성(百姓)이 되어나서  
 군사 싫다고 도망(逃亡)하면 화외민(化外民)이 되려니와  
 한 몸에 여러 신역 물다가 다른 일 할 새 없어  
 또 금년이 돌아오니 유리무정(流離無定) 하노매라

〈EBS 수록 부분〉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  
 요순(堯舜) 같은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하(覆盆下)라 비칠소나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他官消息) 들어 보게  
 북청부사(北靑府使) 누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깐 잊었네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각대 초관(各隊哨官) 여러 신역 대소민호(大小民戶) 나눠 곁으니  
 많으면 닷 돈 풍수 적으면 서 돈이라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女女戴) 모여드니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본읍(本邑) 맡겨 제사(題辭)\* 맡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불문시비(不問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  
 천신만고(千辛萬苦)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로휴유(扶老携幼)\*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 넘어  
 단천(端川)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星岱山)을 넘어서면  
 북청(北靑) 땅이 괴 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 다 떨치고  
 모든 가족(家屬)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 하올소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忠君愛民)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嶺路)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만나마 모자라리  
 일모충충(日暮匆匆)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 \*잠방이 :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 \*전태발이 : 다리를 저는 사람.
- \*본토 : 본디의 고향.
- \*돈피 : 담비 모피.
- \*신역 :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 \*초관 :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 \*시종신 :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 \*전가사변 :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
- \*충군 :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별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함.
- \*누대봉사 :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
- \*의법 : 정해진 법.
- \*석송 :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
- \*오가 : 두릅나뭇과의 활엽 관목.
- \*사망 : 장사의 이(利)가 많이 남는 재수.
- \*군정 허오 : 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던 지방의 장정.
- \*의송 : 조선 시대에,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서류.
- \*제사 :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 \*형문 :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 \*부로휴유 :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보살핌.
- \*이친기묘 :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는 버림.
- \*빌이시면 : '빌려주시면'으로 추정됨.

## OX 문제

- |    |   |         |
|----|---|---------|
| 01 |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2006학년도 9월]                 | (○ / X) |
| 02 | 생원은 갑민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 (○ / X) |
| 03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위정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 / X) |
| 04 |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9월]           | (○ / X) |
| 05 | 갑민은 군역 부담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옥에 갇힌다.                 | (○ / X) |
| 06 |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8학년도 9월] | (○ / X) |
| 07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014학년도 9월 AB]       | (○ / X) |
| 08 |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2003학년도 수능]          | (○ / X) |
| 09 |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2008학년도 9월]         | (○ / X) |
| 10 | 갑민은 '나라님'이 삶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인식한다.             | (○ / X) |

Step

# 02

## 지문 분석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어저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이 → 생원의 방화  
 □ : 강판사 □ : 갑민

⇒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이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 : 갑민의 신분과 상황 암시

⇒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하는 이가) 너로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배적삼이 깃만 남고

⇒ 허리 위를 보면 배적삼이 깃만 남아 있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 현 잠방이가 노닥노닥하구나.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 허리 굽은 노모는 앞에 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엮쳐지리

⇒ 십 리 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나 가서 엮쳐지리.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옮겨 살면

⇒ 내 고을의 양반인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 싫다 하고

⇒ 천하게 되기 마련인데, 고향의 군역이 싫다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 자네 또한 도망가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 설의법 : 천한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 근본을 숨기고 살려 한들 어디로 가도 (천한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부리박아

⇒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부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돈피(狍皮) 잡아  
 당시 백성에게 주어진 신역(몸으로 치르는 노역)이 과중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칠팔월에는 삼을 캐고 구시월에는 돈피를 잡아

공채(公債) 신역(身役)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 공채 신역을 값은 후에 남은 삼과 돈피를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 함흥, 북청, 흥원에 장사를 돌아들어 몰래 팔되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 : 당대 농민의 소박한 소망

⇒ 후한 값을 받고 팔아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 집과 논밭을 다시 사고 살림 도구를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 부모와 처자식을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서사 : 생원의 물음 - 도망가는 군사의 시정을 물음

### 시어 시구 풀이

네 행색을~네로고나 → 갑민이 처한 상황이 당시에는 흔하게 발생하던 일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잠방이 → 갑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마든 훌바지.

전태발이 → 다리를 저는 사람.

허리 위로~노닥노닥 → 갑민의 초라한 행색과 갑민 가족의 형상을 묘사한 부분.

십 리~엮쳐지리 → 온전치 못한 모양새로 하루에 십 리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갑민 가족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토 → 본디의 고향.

내 고을의~면할손가 →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되는 삶의 어려움을 강조한 부분.

돈피(狍皮) → 담비 모피.

신역(身役) → 나라에서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칠팔월에~누리려문 → 생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

어와 생원인지 초관(哨官)인지  
 → 갑민의 발화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 : 도망가는 사정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성장하니 **이때** 일을  
 → 나도 또한 갑민이라 이 땅에서 성장했는데 이때 일을 모를소냐.  
 ↗ 설명 : 갑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모를소냐

우리 조상 남중(南中) 양반(兩班) 진사 급제 계속하여  
 ⇒ 우리 조상이 남중 양반이라 진사 급제를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 금장 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으로 다니다가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 한 후에  
 ⇒ 남의 시기와 참소를 입어 전가사변을 당한 후에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 : 갑민의 지리적 특성  
 ⇒ 나라의 가장 변방인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 조상 덕분에 갑민이 읍중에서 양반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음.  
 본사 : 갑민의 말 - 조상의 내력 설명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有司) 장의(掌儀)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을 보아 사양했더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써  
 □ : 갑민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함.  
 ⇒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의 모해를 받아서

군사 강정(降定)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 군사 강정 되었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 되거고야  
 ⇒ 좌우 전후 많은 가족들이 군역을 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누대봉사(累代奉祀)**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 : 조선 시대에 제사는 대표적인 양반 문화였음.  
 ⇒ 여러 대에 걸친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야 할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매어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 여러 사람의 모든 신역을 내 한몸에 모두 물리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이라  
 ⇒ 한 사람당 신역으로 삼 냥 오전, 돈피 두 장을 내야 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라

**생원** → 소과에 합격하여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

**초관** → 하급 무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

**시종신** →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

**전가사변(全家徙邊)** →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

**우리 조상~한 후에** → 갑민이 자기 조상의 내력을 밝히는 부분

**좌수** → 조선 시대 지방의 자치 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임원

**별감** → 조선 시대 유향소에 소속된 관직

**풍헌** → 조선 시대 향촌 자치 조직의 임원

**감관** → 조선 시대 각 관청이나 궁방에서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정부 대신 특정 업무를 감독하던 관리

**충군(充軍)** →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로 충당한다.

**누대봉사(累代奉祀)** → 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

**의법(依法)** → 정해진 법에 따름.

Step

03

## 작품 해제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주제

조선 후기 갑산 지역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 비판

특징

- ①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이 전개됨.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보여줌.
- ③ 민중의 목소리로 당대 현실의 모순을 고발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작품 속 사회상이나 선정을 베푸는 복청 부사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조선 영·정조(18세기) 때 갑산 지역에 살던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신역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경제적 기반이 없는 몰락 양반이나 민중들은 그 부담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기도 하였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시대에 귀양지로 이름 높던 곳이었다. 이곳은 산악 지대에 근접하여 경작지가 적었으므로 이곳의 사람들은 신역으로 인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서는 갑민의 삶의 내력과 신역을 마련하기 위한 고생을 통해 민중들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갑민과 생원의 대화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당대 민중들이 겪었던 삶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Step

04

## 논문으로 만나는 출제자의 시선

나BS 수능특강 | 고전문학

## 조선 후기 사회의 폐단과 관북민의 삶

조선 후기는 봉건적 질서의 해체로 인해 신분제의 동요, 상공업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활성화, 실학의 등장, 민중문화의 발달 등의 변화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농업 생산력과 사회적 분업의 발달로 계층 분화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고, 세도정치의 폐단과 삼정의 문란 등으로 농민들은 각종 조세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구조적 모순과 집권층의 수탈 행위는 민중의 생활을 고통과 궁핍 속에 빠뜨렸다. 관북 지방은 이러한 폐단이 가장 심한 곳이었다. 관북 지방은 국경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거친 땅이어서 중앙으로부터 늘 소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하여 이 지역에 부임한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곤 했다. 관북민들은 척박한 지리적 환경으로 불리한 생산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취제도의 모순으로 고통 받으며 최소한의 생존 여건마저 위협받았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민중들은 유망(流亡,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 제도의 모순으로 유망한 사람의 조세가 지역에 남아 있는 친족과 이웃에게 전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수취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유망하려는 화자(갑민)가 등장한다. 갑민은 본래 '남중 양반'이던 조상이 '참소'로 극변방인 갑산으로 밀려나온 이래 대대로 읍중 구실아치를 맡을 정도로 세력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대에 이르러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되어 많은 가족들이 차차 '총군(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총당함.)'되었다고 탄식한다. 갑민의 내력으로 보아 당대 몰락 양반은 향촌 사회의 지배 세력에서 소외되면서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양민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갑민은 친족들의 도망으로 총 13인의 군역을 홀로 감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해마다 맞춰' 물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갑민조차도 13인의 신역을 매해 떠맡기 어려웠던 까닭에 결국 그는 삶의 근거지였던 고향으로부터 유망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처럼 민중에 대한 국가의 가혹한 수탈과 이로 인한 민중의 암담한 현실은 민중들이 고향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다.

### 현실 비판 가사로서의 갑민가

조선 후기에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일련의 작품군이 등장하는데, 이를 일컬어 '현실 비판 가사'라 부른다. 「갑민가(甲民歌)」는 대표적인 현실 비판 가사로, 군정(軍丁)의 폐단이 심했던 18세기 말엽 함경도 갑산(甲山)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열악한 현실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이 작품은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체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지 말기를 권하는 '화자1(생원)'의 질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화자2(갑민)'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갑산과 북청이 대조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정든 고향을 떠나 유리(遊離)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갑민'의 사정이 정당화되고 있다. 갑민의 답변을 통해 북쪽의 변방에 사는 이들의 생활상과 수령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고통 받는 당대 하층민들의 비참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에서 갑민은 선치(善治)가 행해지는 다른 고장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즉 「갑민가(甲民歌)」에 제시된 갑민의 형상은 부조리한 수취 제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선정을 베푸는 관리의 부재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여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조선 후기 유리민(流離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삶의 모순과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 유망 행위에 대한 정당화 논리

작품에서 생원은 갑민에게 유망하면 '천하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유망(流亡, 일정한 거쳐 없이 떠돌아다님)하지 말고 고향에서 살 것을 권유한다. 생원의 권유를 받은 갑민은 생원의 말을 '이때 일을 모르고 한 말로 치부하고 자신이 유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한다. 우선 갑민은 이미 자신이 군역을 지게 된 처지로 전락했으며, 신역을 충당하기 위해 채삼 및 돈피 사냥을 갔다가 수확은커녕 동상으로 열 발가락을 잃고 돌아오게 된 상황을 밝힌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이었다. 이어서 갑민은 아내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현실적 삶의 근거를 상실한 과거를 유망하게 된 이유로 제시한다. 그리고 갑민은 자신에게 닥친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두 번이나 상소를 올리지만 오히려 형문만 당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듭되는 비극적 현실 앞에 결국 갑민은 유망을 선택하게 된다. '폭설-아내의 죽음-유망'으로 이어지는 갑민의 삶은, 세계의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갑민은 서서히 삶의 기반을 잃어간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생원에게 자신의 유망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피력한다.

###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지

조선 전기 가사에서 '구중천문 멀어 있다'는 표현은 '멀수록 (왕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갑민가(甲民歌)」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왕의 존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갑민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타개할 방안으로 선정을 베푸는 관리의 출현을 바라는데, 소망을 비는 대상은 왕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 왕을 상징하는 '나라님'에게 자신의 하소연이 닿는 일을 거절당한 경험에 기반하여, 갑민은 '나라님'이 민중들이 처한 비극을 해결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회의적 인식은 삶의 어려움을 초월적 존재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이때 '하나님'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민중 사이에 뿌리를 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8. 임금을 상징하는 '별', 화자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미화',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는 '옷'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연군지정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반기실가'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임이 여전히 화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이 서지 않기 때문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꿈의나 님을 보려는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화자가 꿈에서 임과 재회했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part 1.고전 시가 | 15 만인사\_안도환

정답

1.0 2.X 3.0 4.X 5.X 6.0 7.0 8.0 9.X 10.X

1. '고기 낚기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 나무 베기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 하리', '탈망건 갓 숙이고 출중치막 띠 끄르고',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엇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등과 같이 여러 구절을 대구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2. '장안'은 도읍지를 뜻하며 화자는 현재 유배로 인해 도읍을 떠나 있는 상황이므로 '장안시상 열두 다리'를 시상이 전개되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3. '엇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4.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라는 구절로 미루어볼 때 동냥하던 공간에서 주인집으로의 귀환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공간의 이동을 통해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오히려 주인집에서 주인에게 타박을 듣고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 하라 /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해당 지문에서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의인화된 대상은 찾아볼 수 없다.
6. 화자는 동냥하기, 등짐 지기, 노 끄기 등의 행위를 열거하여 고된 유배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7.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와 같은 구절에 동음이의어 '다리'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또한 '손과 다리 머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 주름'이라는 구절에 동음이의어 '손'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 밥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와 같이 집 주인의 발화가 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집 주인의 말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집 주인의 냉소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9. 고전 시가에서, 고기를 낚는 행위는 사대부들이 자연에서 흥취를 즐기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작품의 화자는 생계를 위해 고기를 낚고 있다.
10.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등 설의적 표현이 여러 번 쓰였으나, 화자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part 1.고전 시가 | 16 갑민가\_작자 미상

정답

1.0 2.0 3.0 4.0 5.X 6.X 7.0 8.0 9.X 10.0

1. 이 작품은 '생원'의 질문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갑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2. 생원은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 근분 숨겨 살려 한들 여대간들 면할손가'라고 말하면서 갑민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3. '불문시비(不問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 한 번 맞았던 말가'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형벌을 내리는 위정자들에게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갑민'이 살던 '갑산'과, 선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북창'의 대비를 통해 신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모든 가족들을 편하게 지키고자 하는 '갑민'의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5. 갑민은 신역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을 글로 지어 하소연하지만 번거로운 소송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을 뿐, 옥에 갇히지는 않는다. 대신 옥에 갇힌 것은 그의 아내이다.
6. '오가 잎이 날 속인다'에서 주체(갑민)와 객체(오가 잎)가 뒤바뀐 표현이 쓰였다. 이는 오가 잎을 삼으로 착각한 화자 '갑민'의 상황이 해학적으로 그려진 것일 뿐, 화자의 인생관과는 무관하다.
7. '무지미물(無知微物) 참새때도 또한 서럽게 운다'에서, 참새때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8. 위 작품에는 신역으로 인해 전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비참하게 떠돌 수밖에 없는 화자(갑민)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9. '갑민'이 건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자연에 의지해 있고 자 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갑민은 신역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것일 뿐, 자연에 의지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10. '나라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복분하(覆盆下)라 비칠소냐'에서, '나라님'이 삶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part 1.고전 시가 | 17 집장가\_작자 미상

정답

1.0 2.X 3.0 4.0 5.0 6.0 7.0 8.X 9.X 10.0

1.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서사를 구분하고 있다.
2.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 청버들을 좌르르 훑어' 부분을 통해 서로 대립되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 춘향을 매질하려는 집장 군노의 모습을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가 철퇴를 들어 메고 내닫는 형상',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벼락하듯'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4.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광풍의 낙엽'은 세찬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의 모습을 통해, 춘향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 나 없이 EBS 풀지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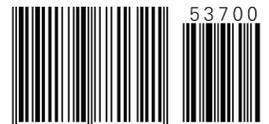
## 국어강사 전형태

---

대성 SNC 출판 대표  
대성마이맥 국어 대표 강사  
나 없이 기출 풀지 마라 저자  
강남대성 3년 연속 최상위 강의 평가  
이강학원 국어과 최다 인원 마감 강사

---

값 19,000원



9 791188 881321 53700  
ISBN 979-11-88881-32-1